

전북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

전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68억원 융자 지원 융자 100%·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영세농·AI 피해농가·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우선

전북도가 올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

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은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 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가 사육마리수를 곱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0천원(피해농가 2,040천원), 낙농 2,600천원(3,900천원), 양돈 300천원(450천원), 양계 12천원(18천원), 오리 18천원(27천원) 등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여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농가사료구매 자금 지원이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12일 전주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북체육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북 찾아 당면 현안 논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당면 현안 논의를 위해 전북을 찾았다. 1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체육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공포된 것과 관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자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북체육회 김동진 부회장, 최형원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내 시·군체육회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법 시행에 따른 시·도 및 구·시·군체육회장 선출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

TF팀을 운영중이다. 이번 자리는 지방체육의 현실을 알고, 회장 선출 관련 의견을 듣기위해 대한체육회가 마련했다. “회장 선출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위해 전북에 왔다”며 “문제점과 대응방안, 전북체육의 현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전북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을 비롯해 각 시도체육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진행,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文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 할랄 전시회·동포 간담회 참석

정상회담·MOU 체결도 내일 비즈니스 포럼 개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다음 순방지인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반다르스리브가완 국제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두 번째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다. 2시간30분여 비행 끝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말레이시아 측에서 국제통상산업부장관인 다헬 영예수

행장관 내외, 사이푸딘 외교부장관 내외, 아쉬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 내외, 완 자이디 외교부 의전장 내외, 로자노 총리실 의전장 등이 영접했다. 우리 측에서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 김동배 한인회장이 마중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대 쇼핑센터인 윈우타마 쇼핑몰로 이동해 한류-할랄 전시회를 구경했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 어우러진 제품들이 전시됐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문 대통령은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동포간담

회에 참석했다. 이번 동포 간담회엔 현지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양국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화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는다. 이어서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양국은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의 강점인 한류를 접목시켜 공동으로 제3국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포럼에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됐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뉴시스

전북도,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도내 해빙기를 맞아 도내 급경사지 1,149개소에 대해 전수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급경사지 비탈면과 옹벽의 상태, 낙석방지막, 낙석방지책 등 낙석방지시설의 이상 유무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조물, 안반, 토사면 등의 균열과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의 낙석우려 여부와 주변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된 급경사지에 대해 뜬돌 제거가 필

요하거나 배수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낙석방지시설 파손 등으로 인해 시설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 통행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 후 응급 보수를 실시한다. 또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대규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예산 확보 후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과 더불어 100여원을 투입하여 위험한 급경사지 17개소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급경사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부를 만들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